

## 선진 한국건축의 새 천년을 만들자

### For a New Millennium of Korea's Advanced Architecture

이외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Eui-Koo

대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평소 우리 건축계와 협회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정무 건설교통부 장관님을 대리한 최종찬 차관님 또 이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자유민주연합 부총재이신 이인구의원님과 국민의회 송현섭의원님 그리고 역대회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 !

지금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이나, 우리들의 업무는 쉽사리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회원들이 겪는 고통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지난 시절, 고도성장의 풍요를 맘껏 누리던 중에 찾아온 터라 그 체감지수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건축사들은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온갖 역경을 딛고 한국건축의 오늘을 이룩해 낸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심기일전의 자세로 선진한국건축의 새 천년을 열어 나갑시다.

대의원 여러분 !

지금 우리사회는 새로운 한세기를 앞두고 커다란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정부주도형 경제는 시장경제 위주로 체제가 바뀌고 있고, 규제위주정책은 업계 자율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비롯한 우리 건축계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스스로의 변신을 서두르지 않고는 존립마저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회장직무를 수행한 지 이제 낙달날짓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록 경황없고 분주하기만 했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행부 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회원들 곁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무소 경영난에 고통 받는 회원들을 보면서, 또 구조조정으로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던 사무처 직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피해 갈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기에 지금의 상처를 가슴 한 켠에 묻고 협회를 거듭나게 하는데 앞장서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기필코 오늘의 고통을 재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협회가 21세기 선진한국건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첫째, 회원에 대한 서비스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협회가 회원을 위한 존재인 만큼 회원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질

적 향상에 최우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회원 권익옹호를 비롯해 업무관련 재교육, 정보지원, 민원관련 상담 등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연구 검토중에 있는 건축허가 전 산화에 대비해서도 소관위원회가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고객인 국민과 회원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회 사무처 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회원서비스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말 사무처 전체직원수의 35%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원감축을 단행하고 조직 또한 팀위주로 축소개편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셋째, '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건축과 건축사의 위상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아시아 16개 회원국 건축사들이 참가하는 「아카시아 포럼」 국제행사를 서울에 유치해 아시아 국가간 건축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협력 증진을 통해, 우리 건축사와 한국건축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국제 자격상호인증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자칫 국제무대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건축사들의 국제적 위상 확보를 위해 이번 포럼 기간중 UIA회장과 아시아지역 건축관련 유력인사들을 초청해 상호인증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 삼단체를 주축으로 벌이고 있는 각종 건축문화의 해 기념사업과 더불어 이번 서울에서의 국제포럼 행사가 건축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우리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아카시아 포럼」을 비롯한 '건축문화의 해' 기념사업들을 범국민적 행사로 완벽히 치뤄내기 위해서는 대의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 !

건축경기의 장기침체 등 경제난과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 여러 환경변화들은 과거의 것에 안주하려해 왔던 우리 건축업무에 일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을 있게 한 제도나 체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미래의 행보를 막는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떨쳐버리고 현실에 맞게 과감히 재정비해야 합니다. 협회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회는 올해초 관심을 모았던 건축법 개정 과정에서도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각종 규제를 줄이는 등 우리의 의견을 대폭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사법의 경우도 최대한인 회원 임의가입 및 단체설립 자유화 문제는 물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도서신고조항도 일단 그 시행시기를 2001년까지 유보키로 법적 보장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공제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래에 있어 공급자는 소비자 만족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당연시되는 등 과거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미 건설관련단체 및 사업자단체 대부분이 공제사업을 통해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기 회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협회 또한 설계·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각종 보증과 배상문제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공제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아직도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총회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고자하는 공제사업의 처음 출발은 이행보증 업무로부터 시작하지만 추후 '건축관련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등으로 사업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회원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공제사업 계획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더이상 지난 시대의 안일함과 소모적 논쟁으로 우리가 겪어왔던 갈등과 혼란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적 합의와 강력한 결속입니다. 우리의 이상과 목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 전 회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갑시다. 지금까지의 낮은 틀을 벗겨내고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21세기 새 천년을 대비한 "새 틀"을 만듭시다 !

아무쪼록 오늘의 총회가 한국건축의 오늘을 지켜온 우리 건축사들의 결집된 의지로 미래를 향해 진일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엄숙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끝으로 대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